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45 -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당신의 재능은 불법이 아닙니다”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문 서두에서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타투 관련 제도를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으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의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시장규모는 약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투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 규제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것이 이 후보측 설명이다. 이 후보는 최근 있었던 유명 연예인의 타투 시술 사례를 예시로 들며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이 불법으로 취급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술자를 불법 시술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시술을 받은 뒤 비용 지불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추행하기도 한다. 현실적인 보호장치 없이 피해로 내몰리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근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한 소식도 덧붙였다.

이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 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며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 타투이스트들의 합법적 시술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관리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를 하겠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타투 시술 합법화를 통해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은 물론 안정성 및 고용 증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타투 시술이 제도화 되면, 시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위생 안전 등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타투이스트들을 갑질 피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붙임] 설명 자료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명(문신 5만명, 반영구화장 30만명), 이용자 1,300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문신(반영구화장 포함)이 대중화되어가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문신 등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인 상황
-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상황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되거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이용자는 문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임

< 타투 및 반영구화장 비교 >

구 분	타투(문신)	반영구 화장
유지기간	거의 영구적	6개월~5년 지속
시술범위	신체 전체	얼굴(눈, 코, 입술 위주)과 미용 성형에 활용되는 국소부분
바늘	1~2mm 굵기 바늘 소독해서 사용하나,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0.15mm 굵기의 일회용 바늘 사용
주입 깊이	진피층 밑 1~2mm	0.08~0.15mm 깊이 (표피층 하부와 진피 상부층 사이)
색소	타투용 잉크 및 다양한 색소 사용	매우 다양한 색소로 자연스러운 연출 가능
시술 장소	타투숍	미용실, 의료원, 반영구화장 숍 등

자료: 보건복지부

□ 국회 입법 상황

- 제21대 국회에서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의 자격 및 위생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인 「문신사법안」(박주민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

영의원), 「타투업법안」(류호정의원)이 각각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에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현실과 법제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하며, 관리체계 마련으로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 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주장
- 반대측 입장에서는 문신 등 시술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점, 시술행위로 인하여 침습성에 따른 감염과 염료에 의한 이물 반응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필요성, 그리고 의료관련 법령체계와도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

□ 국회입법조사처(문신 등 신체예술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의 제안

- 문신 등 시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생각해볼 일
- 과거 일본도 문신 시술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인이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2020. 9. 16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은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취 의료관련성(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 따라서 미국의 법제도사례, 일본의 판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신 등 시술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임박했음.
- 다만 문신 시술 후의 부작용 발생시 의사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강구할 필요 있음

□ K-타투의 국제적 위상

- 한국 타투이스트의 실력은 전 세계인이 인정하여 브래드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 베컴, 일론 머스크, 마이클J폭스, 폼 플레멘티에프, 바네사

허진스 등이 한국 타투 아티스트를 찾아서 타투를 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이 확고한 상황

- 이러한 위상에 힘있어 한국타투는 국제적으로 ‘파인타투’ 라는 장르를 개척해나가고 있음

□ 타투의 산업적 측면

-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타투 시장 규모는 약 1조2천억원(반영구 화장 약 1조원 · 타투 약 2천억원)으로 추정
 - * 이용자 규모는 1300만 명, 시술자는 35만 명 규모로 추정
- 협회주장대로라면 네일아트 시장 7천억(2017년 기준), 안마의자 시장 9천억(2019년 기준) 시장규모에 비견할 수 있음

□ 타투 합법화의 필요성

- 산업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에서 합법화가 필요
 - 지금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추정치이며 1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장에 세금도 못 걷고 있음
 -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신이 불법인 것을 악용하여 성추행 ·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는 점 이용하는 범죄자들도 있으며 또한 계좌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계좌를 이용하기도 함